

장성군 시민단체 '군의원 소환' 철회

군의회와 농업예산 원상 복구 합의

의정비 인상분 전액 사회 환원키로

농업 관련 예산삭감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장성군의회와 시민단체가 4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운동도 중단되면서 지역 갈등 양상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의회와 주민소환추진위원회

회는 이날 오후 군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삽감예산의 원상복구와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추진 운동 중단을 내용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장성군의회는 합의문에서 "200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저해하는 예산 삭감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소환 단체에까

지 이를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봉사자로서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주민소환추진위도 "이 청 군수와 사회원로들의 뜻을 받아들여 양보하고 협력하는 의미로 주민소환운동을 취소한다"며 "갈등과 반목이 오히려 군민간 화합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와 주민소환추진위는 ▲ 군민에 필요한 삽감 예산 원상복구 ▲ 35% 인상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해 10%를 사회환경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사퇴 철회 ▲주민소환운동 추진 중단 등에 합의했다.

군의회와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달 27일 합의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내용에 입장 차이를 보이다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장성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군의회가 노인복지 및 농업 관련 예산 44억 600여만 원을 삭감하자 이에 반발, 지난달 18일부터 군의원 4명을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 등 의회와 갈등을 겪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순천대 공대 광양 이전 갈등 '봉합'

'발전협의회' 구성 대화로 풀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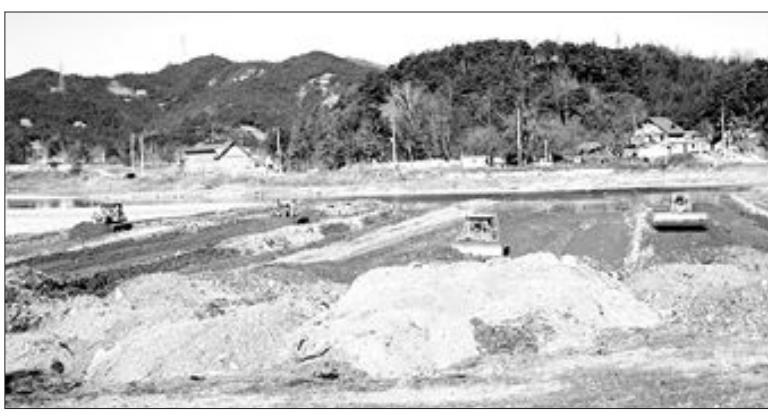
순천대 총장·순천시장 합의문 발표

순천대학교 공대의 광양 이전 문제로 졸업했던 순천대와 순천시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

장만체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은 4일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겠다"며 "가칭 '순천대학교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총장은 공대의 광양 이전 문제가 본래 의도와 달리 왜곡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심려를 끼친



화순군이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국가하천인 지석천 일대 1.2km 구간에서 하천 퇴적토 준설작업을 벌였다.

화순군, 하천 퇴적토 대대적 준설

화순군이 대대적인 하천 퇴적토 준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은 이달 중에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13개 하천(12km) 6만m³를 준설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하천인 지석천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구성한 '하천 퇴적토

제거 자원봉사단'에서 불도저 17대를 지원받아 1.2km 구간을 중점 정비했다.

화순군은 이번 퇴적토 준설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등의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데 대해 시민들에게, 노 시장은 대학의 존엄과 자율을 훼손한 데 대해 총장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각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순천대 공대의 광양 이전 계획이 처음 알려진 후 순천시와 총선 예비후보들, 지역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이에 장 총장이 반박하는 등 심화돼온 지역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대의 광양 이전 문제를 '순천대학교 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순천대가 당분간 독자적으로 광양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대나무 공예 명인 7명 선정

담양군, 홍보대사 활동·전승 지원금도

담양군이 대나무 공예 명인을 선정했다.

담양군은 최근 20년 이상 대나무 공예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 16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7명의 명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명인은 ▲나죽-이형진 ▲세대갓-노순길 ▲죽제기-김

성수 ▲부체-김대석 ▲죽검-황인진 ▲죽관악기-김성남 ▲차바구니-서석근씨 등으로 모두 2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었다.

명인들은 대나무 공예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담양군 대나무 공예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 매월 일정 금액의 전승 지원금도 지급된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시는 조례안은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부부에게 효도관광과 함께 축하금을 지급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위안잔치를 열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사회복지자원에

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복지 예산을 금수부부의 기념행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한곳도 없는데 흘로 사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개별적 조례보다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조례안에 대한

"화순 이서 전통 봉엿 드세요"



화순 이서면 전통 봉엿 연구회(회장 김덕남) 회원들이 설을 앞두고 봉잎을 이용한 전통 봉엿을 만들고 있다. 이서 봉엿은 회원들이 직접 기꾼 쌀과 엿기름, 생강, 콩, 참깨를 이용해 쌀엿과 조청을 짚작불로 고아낸다. 특히 직접 채취한 봉잎을 길이 넓어 색이 선명하고 오래 지속되며 치아에 달라붙지도 않아 인기를 끌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 '선심성 노인 조례' 제동

市 "노인복지 예산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나주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추진한 노인 관련 조례가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나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한 금흔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부부에게 효도관광과 함께 축하금을 지급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위안잔치를 열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사회복지자원에 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복지 예산을 금수부부의 기념행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한곳도 없는데 흘로 사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개별적 조례보다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시의회에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의 동조로 결국 조례안이 부결됐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99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백수(白壽)수당 조례를 제정했으나 수혜자가 10여 명에 그쳐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는 애초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혜자를 90세 이상으로 정했다가 지원대상 연

령을 99세 이상으로 슬그머니 높였다. 금흔조례 제정을 추진한 한 시의회원은 "형평성 문제 등은 개정이나 수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한데 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원내대로 통과한 뒤 재의결에서 일부 동료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세 얼굴

"지역민·조합원 금융 서비스 강화"

허승택 농협중앙회 강진지부장



"농민에게 감동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신임 허승택(50) 농협중앙회 강진지부장은 "지역민과 조합원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높여 더욱 가깝고 친절한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진 성전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한 허지부장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실과 북순천지점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영미씨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movies 인기 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현외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동 (삼무빌딩과 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동)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 ARS 전화예약 227-1960

Happy Time

영화안내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한도시민 영화시민 ☎ 예매: www.joyobo.com / 1588-7941

색깔있는 영화신작 ☎ www.cinus.co.kr /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세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 / www.jelicinema.co.kr *

영화안내

*고기 맛집과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2월 5일 ~ 2월 9일 심야상영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한도시민 영화시민 ☎ 예매: www.joyobo.com / 1588-7941

색깔있는 영화신작 ☎ www.cinus.co.kr /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세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 / www.jelicinema.co.kr *